

# 통신사들 사이 좋게 5세대 통신망 구축

초고속주파 기지국 설치 협력

연간 400억원 절감 효과

4년 내 전국 상용화 목표

내년 3월로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속도감있게 진행하고 중박투자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설비를 공동으로 지어 함께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400억원의 설비 구축 비용이 절감되고 앞으로 10년간 최대 1조원의 투자 비용을 아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주요 통신사들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 작업은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차세대 통신망인 5G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쓰고 대역폭이 넓어야 하기 때문에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 기지국·중계기와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광케이블 등 보다 많은 통신설비가 필요하다.

실제 5G망이 사용하게 될 280㎐와 3.5㎐의 초고속주파 대역은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기지국 수가 기존 LTE망 대비 4.3~18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및

■무선통신망 개요도



면이나 지하공간 등에도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고 유선망으로 이를 통신국사까지 연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든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통신설비 공동구축은 터 파기 등 굴착공사, 관로·맨홀 등의 포설을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신축건물에 인입관로가 설치되는 구역 등에 주로 적용돼 왔으나 5G처럼 전국적 통신망 구축에 의무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유선사업자 외에 SK텔레콤이 추가된다.

정부 개선안이 시행되면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유선사업자 외에 SK텔레콤이 추가된다.

대상설비는 기존의 전주, 관로·맨홀 등 유선 설비에 더해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 설비가 포함된다.

공동구축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의 범위도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물로 넓어져 설비공사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지금은 기준이 연면적 2000㎡ 이상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의 범위가 늘어난다. 지금은 광케이블, 구리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계실 상면 등으로 의무 제공 설비가 한정돼 있으나, 여기에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이 추가된다.

아울러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맨홀 등)까지에 해당하는 '인입 구간'의 경우 기존 KT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도 자사 설비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고려해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도심 및 비도심 구분을 포함한 지역별 공사환경 차이를 반영해 차등을 두게 할 방침이다. KT는 보유한 유선 관로 등 시설을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다. 상세한 이용대가 산정은 전문가간

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해 법에 어긋나게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후 규제를 맡길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통신사들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추후 이용대가 산정에 미묘한 감정을 드러냈다.

의무제공 시설물이 가장 많은 KT는 "5G 조기구축 지원이라는 제도 개선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적정 수준의 이용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혀 넉넉한 대가를 기대했다.

반면 SK텔레콤 관계자는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이용대가 산정, 공동 활용 조건 완화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좋은 환경이 조성됐으며 특히 지자체 시설 활용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9일 공청회를 열어 5G 주파수 할당 계획과 경매 일정을 공개한 뒤 6월 중순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5G 서비스는 내년 3월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돼 2021~2022년께 전국적인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KT는 올레 tv 10주년을 맞아 '올레 tv 텐 페스타'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이벤트인 '캐릭터 운동회' 개최를 KT 모델이 홍보하고 있는 모습. <KT 제공>

## ‘핑크퐁’ ‘뽀로로’ 인기 캐릭터와 운동회

KT ‘올레 tv’ 10주년 행사

KT(회장 황창규)는 ‘올레 tv’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고객 감사 페스티벌 ‘올레 tv 텐 페스타’를 개최하고, 올레 tv 키즈랜드 ‘캐릭터 운동회’ 초청 행사를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레 tv 텐 페스타(이하 페스타)’는 올레 tv 주요 콘텐츠를 장르별로 구성해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2분기는 ‘키즈’,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무비’와 ‘뮤직’을 테마로 월 별 다양한 프로모션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또 각 페스타는 스마트스타, 월트 디즈니 코리아, NBC 유니버설 등 해당 장르를 대표하는 콘텐츠 사업자와 협업한다. 우선 ‘페스타’ 첫 번째 이벤트로 ‘캐릭터 운동회’가 열린다. 올레 tv 고객 가족을 초청해 ‘핑크퐁’, ‘뽀로로’, ‘캐리와 친구들’, ‘타님매가드’, ‘헬로카봇’, ‘소피루비’, ‘대교 상상키즈’ 등 인기 캐릭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했다. 올레 tv 고객이라면 누구나 5월 5일까지 KT닷컴이벤트 페이지 또는 올레 tv 메뉴의 ‘오늘의 이벤트’에서 응모할 수 있다.

또 2018년 한 해 동안 올레 tv 고객 10만 명에게 소장용 영화를 무료 제공, 1만 명에게 운동회·전시회·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에 초대하고, 1000명은 콘텐츠 사업자와 함께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혜택을 준비했다.

우선 ‘페스타’ 첫 번째 이벤트로 ‘캐릭터 운동회’가 열린다. 올레 tv 고객 가족을 초청해 ‘핑크퐁’, ‘뽀로로’, ‘캐리와 친구들’, ‘타님매가드’, ‘헬로카봇’, ‘소피루비’, ‘대교 상상키즈’ 등 인기 캐릭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했다. 올레 tv 고객이라면 누구나 5월 5일까지 KT닷컴이벤트 페이지 또는 올레 tv 메뉴의 ‘오늘의 이벤트’에서 응모할 수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재밌는 숫자 이야기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아)은 과학의 달을 맞아 지난 7일 ‘0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에는 김선아 국립광주과학관장이 강연자로 나서 숫자 0의 발견 등 수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강연했다. 다음 강연은 ‘근대과학기술관 오픈 특별강연’으로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현승 국립광주과학관 선임연구원이 강연자로 강단에 서며 근대과학사와 근대과학기술관 심화 해설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과학관은 또 ‘스티븐호킹 추모 특별강연’, ‘필사이언스 강연’, ‘세계의 도시 과학을 만나다!’ 등의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 아이폰8 ‘빨간 맛’...레드 에디션 나왔다

애플은 아이폰8과 아이폰8 플러스 레드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강화유리 재질로 마감된 이 제품은 앞면은 블랙, 뒷면은 레드 컬러로 이뤄졌다. 기능은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8 시리즈와 같다.

아이폰8 레드 스페셜 에디션은 이날부터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등 1차 출시국에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며, 13일부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주문할 수 있다.

2차 출시국인 한국에는 이달 말 출시된다. 64GB와 256GB 모델로 출시되며 애플 웹사이트 기준 출고가 99만원부터 판매된다. 국내 이동사 판매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애플은 유럽산 가족으로 제작된 아이폰X(텐)용 폴리오 케이스도 함께 출시한다. 국내에서는 10일부터 판매되며, 가격은 12만9000원이다.



아이폰8 레드

레드 제품 판매에 일부는 후천적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HIV)와 에이즈(AIDS) 퇴치 기금으로 쓰인다. 특히 임산부의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전이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된다고 애플은 전했다. 애플은 2006년 레드와 손잡은 이래 1억6000만달러(한화 약 1711억원) 이상을 기부해 최대 기업 기부자로 자리매김했다. 작년 10월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8 시리즈는 레티나 HD 디스플레이, A11 바이오닉 칩, 무선충전 기능 등을 탑재했다. 기존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골드 3종으로 이번에 레드도 추가됐다. <연합뉴스>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아닙니다. 니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장수기업

### 가능성 속옷 의명가

KCPRA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 편안하면서도 탄성GOOD! 흡습성GOOD! |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함유, 실크아미노산, 원적외선특수물질가공

www.aroma-life.co.kr

# 1588-2219